

“하루모니’들의 사연,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해”

20년간 강제징용소송 운동 전개 나카가와 미유키씨 광주 강연

“대학시절 5·18 영상에 큰 충격
진실 알려 일본 국민 변화 목표”

“1996년 일본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1차 소송을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할 원고 ‘하루모니’(할머니)들의 사연을 듣고, 그들이 패소하는 모습에 그들과 함께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후지코시는 일본에서 54개의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이다. 공업용 기계와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는 후지코시는 태평양 전쟁 당시 여자 근로정신대를 가장 큰 규모로 동원한 전범 기업이기도 하다.

공장이 있는 도야마 지역은 후지코시와 관련되지 않은 주민이 없다시피한데, 그곳에서 강제 징용 소송 운동을 20년 넘게 전개해 온 일본인이 있다.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이하 호쿠리쿠



일본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강제 징용 소송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본 시민운동가 나카가와 미유키씨(왼쪽)가 투쟁에 사용하는 팸플릿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락회)의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은 지난 8일 광주를 찾았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역사콘텐츠제작팀 ‘광희’는 이날 전남대학교 인문대 김남주홀에 나카가와씨를 초청, 시민강좌를 개최했다.

나카가와씨는 1992년부터 시작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투쟁의 역사를 담담한 목소리로 전했다. 그는 할머니들을 ‘하루모니’라고 부르며 짙은 애정을 드러냈다. 나카가와씨와 호쿠리쿠 연락회가 투쟁을 벌

이는 후지코시는 1944년부터 1945년까지 징용공 540명, 여자근로정신대 1천90명을 강제동원한 기업이다. 이 수치는 후지코시가 발간한 후지코시 50년사에 등재된 숫자이며 일본 정부나 후지코시는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은 1992년부터 시작했는데 나카가와씨는 도야마 대학 유학 시절인 1996년부터 동참했다.

이들의 활동으로 2000년 후지코시와 화해안이 있었고 일부 강제 노동 소송이 승소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패소했다.

그 동안 일본 경찰은 수 차례 나카가와씨의 사무실에 가택 조사를 나왔고 현지 언론은 이들을 과격하고 폭탄을 제조하는 집단으로 표현했다.

호쿠리쿠 연락회 회원들이 전쟁 반대·강제징용 사과를 촉구하며 도야마 후지코시 공장 앞에서 문전행동을 벌일때마다 차량 7~8대 규모의 우익단체가 나타난다.

그들은 확성기를 이용해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큰 소리로 “조센징 꺼져라, 거짓말쟁이들은 조선으로 꺼져라”고 외치며 연락회의 활동을 방해한다.

원고단이 요구하는 것은 배상금이 아닌 사죄비를 만들어 줄 것, 그리고 현지 신문에 똑같은 내용의 보도를 해 줄 것이었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나카가와씨는 “우리는 진실을 알리는 활동으로 일본 국민들을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것이 목표다”면서 “대학 재학 시절 5·18에 대한 영상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광주에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한국의 투쟁 열기를 도쿄에 전해서 연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충식기자 zorba85@srb.co.kr**



장세일 도의원, 복지시설서 온정 나눔

전남도의회 장세일 전남도의원(민주당·영광1)은 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랑의 손길을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온정을 나누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장세일 도의원은 이날 영광 푸른동산 아동보호 치료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맘 풀리며 봉사하는 시설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복지시설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평동농협, 이웃사랑 ‘송편나눔’

광주 평동농협(조합장 김익찬)은 최근 평동농협 본점에서 부녀회원(회장 나성신) 20명과 함께 ‘추석맞이 송편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추석을 맞이해 독거 노인을 위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부녀회원들은 정성을 담아 빚은 송편과 떡을 지역내 20개 경로당과 홀로 지내시는 이웃을 직접 찾아가 전달하고 안부를 묻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눴다. **도철원기자 douls18309@srb.co.kr**



아시아문화원, 청렴실천 캠페인

아시아문화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문화원 전 임직원에게 ‘청렴한 당신, 빛나는 AC!’라는 슬로건이 새겨진 ‘청렴드링크’를 나눠주며 반부패·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청렴드링크’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 등 금품이 오고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탁

금지법 실천을 다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시아문화원 전 직원에게 청렴 문자를 발송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청렴한 추석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밖에도 아시아문화원은 매년 민족 대명절 설과 추석을 앞두고 청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렴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양기생기자 gingullove@srb.co.kr**



광주변호사회, 추석 이웃돕기 후원금 전달

광주지방변호사회는 9일 추석을 맞이해 광주 남구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소화자매원’과 광주 ‘일맥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청소년교육센터’, ‘목포 동명원’, ‘해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광주·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 5곳을 방문해 후원금 총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임선숙 회장, 진용태 제1

부회장, 최정희 제1총무이사, 오광표 사업이사, 백준홍 제2회원이사 등이 함께했다.

임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이웃들의 행복한 명절나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법률조력이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정대기자 wordflow@srb.co.kr**



광주은행, 지역 군 장병 위문 방문 광주은행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제31항토보병사단을 잇따라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백혁희기자 haita2000@srb.co.kr**

하남동 ‘얼굴 없는 천사’, 9년째 기부 이어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얼굴 없는 천사’로 잘 알려진 익명의 기부자가 추석을 앞두고 9일 새벽 또다시 하남동 행정복지센터에 사과 50상자를 놓고 갔다.

이날 오전 8시 동 행정복지센터 문을 연 한 공무원이 주차장에 놓인 기부물품을 발견하고, 동료와 주변에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기부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쌀 20kg 들이 35포를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두고 간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6차례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하남동 행정복지센터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돌봄이웃 등에게 사과를 나눠줄 계획이다. **이성호기자 seonho@srb.co.kr**



서석고 3회 동창회, 서구에 장학금·쌀 기탁 광주 서석고 3회 동창회(회장 김영철)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일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에 장학금 3천만원과 쌀 200포대를 기탁했다. 서구는 기탁받은 물품을 인재육성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서충식기자 zorba85@srb.co.kr**



손보협회, 목포경찰에 교통안전물품 전달 손보협회협회 서부(호남·충청) 지역본부(본부장 김양식)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목포경찰서(서장 김영근)에 9일 교통안전물품(아광 지팡이 200개) 전달식을 가졌다.

중흥건설, ‘사랑의 쌀’ 기부행사가 겨

중흥건설은 지난 5일 파주 운정지구와 양주 옥정지구 ‘중흥S-클래스’ 완판을 기념해 각 지자체 사회복지과를 통해 기부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중흥건설 파주 운정지구 김경중 분양소장은 이날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김영미 과장을 만나 주택전시관 개관행사에서 화환 대신 받은 ‘사랑의 쌀’과 기부금 포함 620만원을 전달했다.

또 같은 날 양주 옥정지구 하병수 분양소장은 양주시청 복지문화과 김용훈 국장을



만나 개관행사 때 받은 ‘사랑의 쌀’과 기부금 포함 73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백혁희기자 haita2000@srb.co.kr**

해남소방서 소방관, 최범영 봉사상 수상 영예

故 최범영 선생의 봉사정신을 기리는 제3회 최범영 봉사상 수여식이 최근에 해남소방서에서 열렸다.

최범영 봉사상은 해남 화산우체국에 입사한 뒤 명예퇴직을 할 때까지 우편집배원으로서 헌신한 최범영 선생의 삶과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후손인 최재천 변호사와 미항사 금강스님이 중심이 되어 최범영 기념사업회를 설립했다.

기념사업회는 각 분야에서 성실히 일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있는 직원을 선정해 봉사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제3회 영



광의 수상자로는 해남소방서 강현석 소방위(해남119안전센터), 박준범 소방경(진도119안전센터), 이성기(해남읍 남성의용소방대), 최영숙(삼산면 여성의용소방대)로 4명이 선정됐다. **해남·백혁희기자 md181@srb.co.kr**



동부경찰, 추석명절 대비 현장대응 능력 향상 교육 광주동부경찰서(서장 김영창)는 추석 명절기간 중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가정문제에 대한 신고건수 증가에 따라 추석 명절 대비 현장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동구 관내에 위치한 5개 지역관서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나주경찰, 야생 조수 포획단 간담회 나주경찰서(서장 정경태)는 최근 급증하는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지자체, 유해조수 포획단, 피해 농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조수 포획단 발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나주=김진석기자 suk1586@srb.co.kr**

무등 게시판 Tel: 606 7725 e-mail: mdilbo@srb.co.kr
Fax: 606 7796 ~ 7
보낼곳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SRB미디어빌딩 5층) 무등일보 생활정보담당자 양

등산 ▲광주산길백리산악회=경남 통영 비진도 28일(토) 롯데마트 월드클럽점 주차장 05:30, 동명중 정문 05:40, 문예회관 후문 05:50, 비엔날레 주차장 06:00. 010-3628-1054 ※다음카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

실 2층, 광주 동구 준법로 3번지. ▲광주지방보훈청제대군인지원센터=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소송 분쟁시 비용지원. 132, 1577-8339 ▲사랑애돌봄사업단=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 사업 진행, 대상 서구 구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문의 351-3029, 광주서구지역 자활센터

모집 ▲아무르합창단원=모집인원 남·여 00명, 자격 20세 이상, 연습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9시 30분 광주제일교회. 문의 010-7248-6767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